

한국철도, 철도시설 99곳에 '국가 안전 대진단'



1 정왕국 사장직무대행(왼쪽)이 이천역 수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 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한국철도(코레일)가 10월 29일까지 전국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했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예방 활동으로 지난 9월 1일 시작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교량·터널·사면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교량 22곳, 터널 10곳, 낙석·비탈면 52곳과 이용객이 많은 역사 15곳을 포함해 모두 99곳이다.

한국철도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전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이나 터널 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육안조사가 쉽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도 꼼꼼하게 점검 중이다.

한편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국가 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7일 오후 경강선 이천역을 방문해 수해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정왕국 사장직무대행은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겨울철 폭설과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